


<p>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p>	<p>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p>	<p>짱 부동산 이동희 유스티노 #01421988 이남주 올리아나 #01438381 (619) 300-4124 jnkinc2000@yahoo.com</p>	<p>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p>
<p>제이슨 정 부동산  (858) 603-2333 Jason4989@hotmail.com</p>	<p>샌디에고 한인 유일 퍼시픽 홈랜드 에스크로 여러분의 부동산 매매 믿고 맡겨주세요. 30년 경력의 에스크로 오피서가 편안하게 모십니다. 한국어 오피서: 성지은 세라피나 Jieun.song@phescrow.com T)858-565-4009, C) 858-380-4244</p>	<p>메디 스킨케어 858.277.1005 맑고, 깨끗한 피부 우리성모병원 안에 있습니다.</p>	<p>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p>
<p>Century 21 부동산 원 덕재(요셉) (619) 300-8344 DRE# 1803609</p>	<p>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p>	<p>UDreamDental 유드림 치과 <치과 종합 병원> 임플란트, 틀니, 사랑니, 발치, 교정, 크라운 치아에 관한 모든 치료를 한 곳에서 해결해드립니다. 매니저 박성희 엘리자벳 (949) 514-5605</p>	<p>우리성모 병원 WOORI Medical Group 858.277.7111 처음과 같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p>
<p>Five & Two Limo, Inc. (CA License: TCP#20795-B) LAX & San Diego 공항픽업 콜택시,맞춤관광,골프투어 (858) 472-7927 김호익 안드레아 Limo52@hotmail.com</p>	<p>BEST 홈 리모델링 마루, 타일, 케비넷, 페인트 등, 하우스 모든 공사 858-997-4767 곽효진 (대건 안드레아) 장숙미 (마리아)</p>	<p>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p>	<p>앤디 박 아메리카 부동산 (858)922-9772 부동산 브로커 주택, 비지니스 전문 AndyPark2020@gmail.com</p>
<p>주보 광고를 원하시는 업체는 kccosd@gmail.com 으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p>	<p>부동산과 용자를 함께 책임지는 원스탑 서비스 스티브 리 858-800-CALL</p>	<p>SUNNYSIDE SERVICE Cremation · Funeral 써니사이드 장의사 김재중 24시간 FDR#2224 909-270-7414 / 714-932-8091 www.sunnysidecremation.com 6322 El Cajon Blvd., San Diego, Ca 92115</p>	<p>TAX & ACCOUNTING Certified Public Accountant 김명선(올리아), CPA, MSA Phone: 760-407-7905 Fax: 760-444-2688 MKCPACOM@gmail.com</p>



천주교 샌디에고 한인 성당
Roman Catholic Korean Community of San Diego
www.kccosd.org • 3327 Glencolum Dr. San Diego, CA 92123 • ☎ (858) 292-1960 • FAX: (858) 210-6462

❖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오후 12시 (영어)
(셋째 주일은 없음)
오후 12시 30분
토요일 저녁 오후 7시 30분
평일미사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 토요일
오전 10시

❖ **성사 및 교리 안내**

고해성사 평일 미사 30분 전
주일 미사 1시간 전
혼배성사 결혼 6개월전 신청
유아세례 매월 둘째 토요일 저녁 미사 중 사무실에 신청
병자성사 및 봉성체 사무실에 신청

❖ **사무실 안내**

주 일 11:00 AM ~ 12:30 PM
1:30 PM ~ 2:30 PM
화 ~ 금 9:00 AM ~ 3:00 PM
월, 토 휴무
새로 전입 오신 분, 타 본당으로 전출 가시는 분은 꼭 사무실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임사제 및 평협위원**

사 제 김학봉 바오로 858.292.1960
평협회장 이준 알베르토 858.776.6810
총무 안중식 그레고리오 858.805.5304
총구역장 이영미 루시아 858.527.5721

2020년 8월 9일(가해) 연중 제19주일

❖ **오늘의 전례**

입 당 송 |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고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제1독서 | 열왕19,9-11-13-17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화 답 송 |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아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제2독서 | 로마9,1-5
<내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

복 음 | 마태14,22-33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영성체송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해 설	❖ 금주 봉사자				❖ 다음주 봉사자			
	토요일	주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화요일	금요일
1독서	이승봉	하재분	김정화	심자경	김선영	이승봉	하재분	심자경
	이명숙	안중식	박화진		한소연	이영미	김은경	

연중 제 19주일 강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삶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정하기에 그렇습니다. 요즈음 젊은 세대를 가리켜 3포 세대라고 합니다. 취업을 위하여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죠! 연애, 결혼, 출산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취업을 위해 모든 걸 걸 수밖에 없는 세대라는 겁니다. 연애, 결혼, 출산은 포기하더라도 꿈은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1독서는 엘리야 예언자가 하느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쫓기던 엘리야는 모세가 하느님을 만난 시나이산(거룩한 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하느님은 바람, 지진, 불 속에도 계시지 않고 다만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강한 손으로 에집트인들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고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약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섬세하게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뭄이 극심하던 때,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를 찾아가 한 줌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에 마지막 삶을 의지하고 있는 모자에게 가난하지만 삶을 이어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느님을 만나도록 합니다.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민초들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서 하느님께서 현존하고 계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리에서, 나의 일상적인 노동 안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고 우정을 나누는 자리에서, 가족들의 사랑 안에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천진함 가운데서 우린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통과 병고, 괴로움, 걱정, 심지어 죄 안에서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나야 합니다. (죄 안에서 회개와 새 삶의 기회 주시는 분을)

엘리야 예언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완수하기 위하여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용감하고 끈기있게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예언자의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도 끈기있게 하느님을 만나기까지 충실하게 신앙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제2 독서의 바오로 사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하여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길을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기 낮을 내세우거나 봉사만 받으려고 하는 이들과는 마인드가 다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빵의 기적 이후,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는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보낸 다음, 군중을 흩어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 산으로 가시어 새벽이 되도록 하느님께 기도하십니다.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길임을 마음에 새기고 또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수난과 피흘림을 통하여 아버지께 바치는 참된 제물이 되는 당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청하는 겁니다.

새벽 4시경, 제자들은 역풍을 만나 살기 위해 힘차게 노를 저었지만, 근심과 두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서는 폭풍이 몰아치는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갑니다. 다정하고 따뜻하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풍랑을 만난 교회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요, 주님이요, 구원자이십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세기를 두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는 반대

에 부딪칩니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갈 때 역풍을 만났던 것처럼 말

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교회는 주님을 찾고 그분의 현존을 깨닫고 맡겨진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한 공동체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과 하느님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 공동체에 함께 계시실 겁니다.

베드로가 잠시나마 물 위를 걸었던 것은 주님을 믿고 그 명령에 따를 때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 산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의심, 불신은 다시 물에 빠져들게 하는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장애물, 걸림돌입니다. 믿고 맡길 때(믿음, 의탁) 예수님은 평범한 베드로

◆ 전례 일정

- 8월 15일(토) 성모승천 대축일은 개정된 전례법에 따라서 의무가 관면 되었습니다. 대축일 미사는 없습니다.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주일 제 1저녁 미사는 있습니다.

◆ 실외 미사

- 실외미사에서는 거리두기를 합니다.
 - 실외미사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합니다.
- 미사 장소: 토요 저녁 미사(오후 7시 30분), 주일 낮 미사(오후 12시 30분), 금요 미사(오전 10시)
 - 골롬바 학교 런치를 위한 야외식탁
 - 화요 미사(오후 7시 30분) - 아그네스홀 왼쪽 남쪽 방향주차장
 - 고해 성사: 토요일 저녁 미사와 주일 낮 미사 30분 전, 골롬바 학교 앞 나무 그늘
 - 미사가 없는 날에도 사제가 봉헌하는 매일미사는 사제관이나 제의실에서 봉헌합니다. 미사봉헌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계좌

- 교무금(Monthly Contribution)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에 송금하시는 분의 <성함 세례명>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풍랑도, 박해도, 반대도, 두려운 힘도,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이들을 당신께 예속시킬 수 있는 하느님의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대한 신뢰와 의탁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은 신뢰입니다. 신앙은 의탁입니다. 신앙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은총의 기적은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요한 14, 27) 주님! 언제나 저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대한 신뢰와 의탁의 자세로 살게 해 주소서! 아멘!

- Bank: Hanmi
- Routing No: 122039399, Account No: 500 562 994
- 교무금·성소·감사 우편 접수: Check Payable to **KCCOSD**
- 주 소: 3327 Glencolum Dr. San Diego, CA 92123

◆ 지난주 미사 참례신자 통계

토요 미사	13
영어 미사	-
낮 미사	54
합 계	67

◆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봉헌
 - 김정민, 김태진, 박말환, 박용철, 송문현, 이근수, 이동희, 이윤성, 이영미, 정우정, 최귀복, 채현식, 황용선 (총 13명: \$4,580.00)
- 성소후원금
 - 송문현, 이근수, 채현식 (총 3명: \$90.00)
- 감사 헌금: 이미도, 주현 Ward (총 2명: \$60.00)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낮 미사: \$366.00 토요 미사: \$75.00
- 매일미사책 판매: \$100.00